

20.1Q 상장 중소규모 기업의 실적 동향과 시사점

우리금융경영연구소 미래금융연구실 2020. 6. 30

- 비금융 상장기업 중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'중소규모 기업' 621개社의 20.1분기 실적을 분석
- □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5.2%로 양호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0.0%로 낮은 수준이나 19.1분기 적자 대비 개선
- 업종별로는 기계, 자동차부품, 철강 업종의 중소규모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,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 반도체장비, 의료기기, 게임 업종 등은 실적이 개선
- 하반기에도 핸드셋, 자동차부품, 철강 등 제조업은 회복이 지연될 것이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수요가 늘어나고 정책 지원이 더해져 통신장비, IT 소 재·부품·장비, 헬스케어 중심의 중소기업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
- 급융회사는 중소규모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를 경계하는 동시에 성 장성이 높은 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 원을 고려할 필요

작성자: 김수진 수석연구원 (02-2173-0570)

성지영 책임연구원 (02-2173-0561)

책임자: 권우영 실장 (02-2173-0582)

1. 20.1Q 상장 중소규모 기업 실적¹⁾ 개요

-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1분기 상장 중소규모 기업의 실적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
 - 621개 중소규모 기업의 합산 실적은 매출액 7.2조원, 영업이익 24억원으로,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115억원, 영업이익은 4백만원 수준
 - 매출액은 5.2%(YoY) 증가하여 전년동기(-0.8%) 마이너스 성장에서 회복
 - 전분기(8.9%) 대비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할 때 양호 *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비금융상장기업 총 매출액은 0.02%(YoY) 증가에 그쳤음
 - 헬스케어는 10% 이상의 성장세가 지속되었고, IT 업종은 반도체장비·부품 수 주 증가로 전년도 역성장에서 벗어나며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
 -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였으나 영업이익률 0.0%로 수익성은 여전히 저조
 - 분석대상 기업의 49%에 해당하는 305개 기업이 분기 영업적자 상태로, 2018 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
 - 표본의 30.4%를 차지하는 189개사가 부실기업으로, 이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 적자 비율이 14%에 달함

284

1018

■ 영업적자 기업 수 (개)

256

27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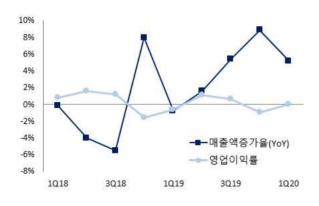
* 부실기업은 2018~19년 연속 영업적자가 이어진 기업으로 정의

분기별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추이

분기 영업적자 기업 수

285

298





자료: 퀀티와이즈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3018

305

294

283

3019

^{1) 2018~19}년 평균 매출액 1천억원 미만 기업의 연결실적 기준으로, 분석기업 수의 55%가 IT, 헬스케어 업종 에 분포해 관련 산업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(붙임 참고)

^{* 20.1}분기부터 표본 변경: 2019년 실적 반영, '통신·미디어·게임' 업종 신설

2. 주요 업종별 동향

■ 게임을 비롯한 통신·미디어·게임 업종의 실적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, IT 와 헬스케어는 적자폭이 축소된 반면 경기소비재는 적자전환 하였고, 산업재와 소재는 수익성이 하락

상장 중소규모 기업 업종별 실적 현황

(단위: %)	비중	매출액 증가율 (YoY)			영업이익률		
		19.1Q	19.4Q	20.1Q	19.1Q	19.4Q	20.1Q
IT	36.2	-4,6	8,1	7.7	-2,6	0,8	-0,8
통신장비	4.0	33.9	24.1	1.4	-7.0	2.6	-2.1
핸드셋	3.5	-10.7	-11.2	-15.0	-3.7	-18.0	-14.5
디스플레이	5.6	-10.4	1.3	4.2	-2.3	-3.6	-2.4
반도체장비·부품	6.4	-15.7	7.8	22.8	-1.2	-0.4	4.9
소프트웨어와서비스	8.5	0.0	12.0	14.2	-3.5	9.5	0.1
전자와 전기제품	2.4	-14.7	-2.5	6.2	-6.9	-3.9	-3.9
헬스케어	18.4	11.8	12,3	13,2	-2,6	-4.1	-1,8
제약바이오	14.2	10.9	9.7	15.1	-5.1	-8.4	-5.3
건강관리장비·서비스	4.2	14.5	19.4	7.8	4.3	6.8	8.2
산업재	14.3	-1.6	7.9	3.4	2,1	0.0	0.7
건설·건자재	3.2	-13.4	12.8	7.0	-4.0	2.5	-2.5
기계	5.6	3.2	-3.9	-1.5	2.4	-2.7	0.5
조선기자재	1.1	-6.7	19.3	15.7	-17.6	-28.1	-11.3
경기관련소비재	12.9	-8.7	8.9	-4.2	0,3	-6.5	-1,2
섬유··의류 등	2.9	3.6	15.0	-6.1	1.8	-2.1	-0.4
화장품	1.9	-31.6	13.2	13.9	-0.5	-30.0	3.6
자동차부품	3.5	1.1	6.8	-4.3	-0.5	-1.8	-2.5
통신·미디어·게임	8.7	15.0	9.8	1.9	0,6	4.3	6.4
방송엔터네인먼트	3.9	23.2	-11.1	-19.5	0.9	0.5	-3.4
게임	2.9	4.4	33.9	20.5	-10.9	0.6	11,9
소재	6.1	0.9	-2,3	-2.8	2.8	0.0	2,9
철강	1.1	1.6	-0.2	-7.2	2.2	-0.2	1.8
화학	3.4	1.3	-2.4	-1.5	2.7	0.0	3.9
기타	3.4	-2.0	25.7	18.1	3.4	-0.7	0.1
중소규모 기업 전체	100	-0.8	8.9	5.2	-0.6	-0.9	0.0

주: 업종은 퀀티와이즈 WICS분류 준용, 비중은 기업 수 기준

자료: 우리금융경영연구소, 퀀티와이즈

[IT] 매출액 7.7% 증가, 영업적자 축소 (영업이익률 -0.8%)

- 전분기 이익기여도가 높았던 통신장비는 적자전환하였으나 반도체장비·부품의 실적이 개선되어 적자 축소
 - (통신장비) 2019년 매출액이 연간 20% 이상 늘어났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중

국 등 해외 5G 설비투자가 지연되며 올해 1분기 매출액증가율은 1.4%로 둔화

- 전년도 대규모 수주로 일감을 확보한 이동통신 중계기 업체 에프알텍과(매출 액 증가율 615%, YoY) 웨이브일렉트로(110% YoY) 등은 매출이 급증하였으나 그 외 다수 기업은 매출 부진으로 영업적자 전환
- (반도체장비·부품) 반도체 후공정 업체의 매출 증대와 국내 반도체 장비의 글 로벌 점유율 확대 등으로 매출액이 22.8%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
 -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은 4.9%로 전년동기 대비 6.1%p 상승
 -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 테스나와 패키징·테스트 등 DRAM 후공정 솔루션 업체인 윈팩의 매출액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82%, 94% 증가
 - * 테스나는 주력 분야인 카메라이미지센서(CIS) 시장이 커지고 있고, 종합반도체 제조사 (삼성전자 등)의 시스템반도체 테스트공정 외주화 수요가 증가. 윈팩의 경우 전년도 메모리반도체 다운사이클에서도 고부가 패키징으로 매출구조를 개선하며 성장세 지속
 -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외관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인텍플러스는 미국, 대만 등의 주요 고객사 확보로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64% 증가

[헬스케어] 매출액 13.2% 증가, 영업적자 축소 (영업이익률 -1.8%)

-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일부 의료장비 업체의 실적이 크게 개선
 - (건강관리장비·서비스) 직전 5분기 연속 20% 내외로 성장한 건강관리장비·서비스는 올해 1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7.8%에 그쳐 성장세가 둔화
 -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와 격리병동 시설에 필요한 의료장비 생산 업체는 매출 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상승
 - 디알텍은 코로나19 진료소에 필요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용 디텍터의 해외 주문이 크게 늘었고, 메디아나는 코로나19 이후 응급환자를 위한 산소포화도측정기, 인공호흡기, 심장충격기, 심전도, 혈압기, 호흡측정기, 체온기 등에 대한국내외 수요가 급증
 - * 20.1분기 메디아나(환자감시장치), 디알텍(휴대용 엑스레이 제조)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35%, 33%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196%, 404% 증가
 - 반면 그 외 병원 진료 수요는 줄어 일반 의료장비 매출은 감소하였고, 전분기 까지 건강관리장비 분야의 고성장을 견인했던 이미용·성형 제품의 판매 성장 세가 둔화

- * 성형(리프팅) 관련 장비 전문업체인 클래시스의 매출액 증가율은 19.1분기 65%에서 20.1분기 32%로 하락
- (제약·바이오) 영업적자비율은 5.4%로 10분기 연속 영업적자 지속
 - 올해 1분기 대형 제약사 대부분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중견업체 중에는 코로 나19 진단키트, 마스크, 손세정제 제조업체의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중소형사 의 경우 성장성이 양호하지만 수익성은 저조한 기조가 지속
 -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5.1% 늘어났으나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신규 종속회사 편입효과를 제외하면 9.8%에 그쳐 19.1분기 10.6% 대비 소폭 하락
 - * 크리스탈지노믹스는 19.4분기부터 화일약품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시작한 영향으로, 매출액이 19.1분기(화일약품 불포함) 12억원에서 20.1분기 418억원으로 증가
 -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신약개발 랩 전문 업체들의 영향으로 바이오 부문은 영업적자비율이 20%에 육박하고, 제약업종은 1% 미만의 낮은 수준
 - 코로나19와 관련해 '렘데시비르' 원료로 사용되는 '뉴클레오시드' 생산 업체인 파미셀은 매출액이 16% 증가에 그쳐 1분기 중 코로나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았고, 다수 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반기 중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

[경기소비재] 매출액 4.2% 감소, 영업적자 전환 (영업이익률 -1.2%)

- 자동차부품을 비롯하여 섬유·의류 등 대부분 소비재 관련 매출이 감소한 반면 화장품은 역성장에서 회복
 - (자동차부품) 완성차 생산 감소의 충격으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하였고,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-0.5%에서 -2.5%로 적자 확대
 - 가동률 하락으로 올해 1분기 현재 22개 자동차부품사 중 15개가 영업적자 상태이고, 2017년 4분기 이후 영업적자가 지속(18.2분기 제외)되며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음
 - * 2019년 1분기 이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네오티스(샤프트), 광진윈텍(시트히터), 세원 (전기차 공조장치), 유니테크노(배터리 셀케이스) 4개사를 제외할 경우 평균 영업적자 비율은 5.8%
 - (섬유·의류) 내구소비재 중 섬유·의류는 2019년 중 10% 이상의 높은 매출 증가세를 보였으나, 경기에 민감하고 대면 판매 비중이 높은 특성상 코로나19여파로 2020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6.1% 감소

• (화장품) 전년도 역성장을 거친 이후 기저효과로 직전분기부터 10%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6분기 만에 흑자 전환

[산업재] 매출액 3.4% 증가, 영업이익 63.4% 감소 (영업이익률 0.7%)

- 조선기자재는 적자 폭이 축소된 반면 기계 업체들은 매출 감소로 수익성 둔화
 - 조선기자재는 국내 조선사의 건조 수주물량 확대로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동 기 -6.7%에서 올해 1분기 15.7%로 상승하였고 적자 폭도 축소
 - 산업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의 경우 19.2분기부터 매출 감소 세가 이어지고 있으며,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2.4%에서 올해 1분기 0.5%까지 하락
 - * 비엠티(플랜트용 설비 제조), 에스엠코어(자동화설비 공급)는 국내 설비 투자 증가의 수 혜로 실적이 개선된 반면 뉴로스(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), 한국정밀기계(대형공작기계 제조), 넥스턴(3D 열성형기 및 자동선반 제조)은 수출 부진으로 매출 감소 및 영업적자 전환

[통신·미디어·게임] 매출액 0.7% 증가, 영업이익 1,043% 증가 (영업이익률 6.4%)

- 게임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
 - (게임 엔터테인먼트) 2019년 하반기 출시된 중소형 게임사의 신작이 흥행을 이어가고, 올해 1분기 코로나19 여파로 게임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 세부 업종 중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
 - * 중소형 게임업체 당 평균 영업이익: 19.1분기 -10억원 → 20.1분기 14억원
 - 국내 게임시장의 양극화로 중소형 게임사는 2017년 이후 적자가 누적되었으나 신작 출시 효과와 코로나19 이후 과거의 인기 게임 매출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며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11.9%까지 상승
 - * 2019년 하반기 출시된 모바일 게임 로한M(플레이위드)과 V4(넷게임즈)의 경우 신작 효과로 올해 1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727%, 697%
 - * 조이시티의 경우 구작인 PC 온파링 게임 '프리스타일' 시리즈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4% 증가하였고, 바른손이앤에이(아스텔리아), 데브시스터즈(쿠키런)도 구작 매출증가로 매출액이 각각 446%, 108% 증가

[소재] 매출액 2.8% 감소, 영업이익 1.6% 감소 (영업이익률 2.9%)

■ 철강은 코로나19 충격이 크게 나타난 반면 화학은 수익성 개선

- (철강) 철강은 19.2~4분기 매출액이 1% 이내로 감소하는 등 하방경직성이 높고 이익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이었으나, 올해 1분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철 강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7.2% 감소
 - 생산량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 지만 제품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여 수익성도 저하
- (화학)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.5%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42.6% 증가 하여 코로나19 영향이 중소 화학업체에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
 - 영업이익률은 19.1분기 2.7%에서 3.9%로 상승
 - 전진바이오팜(유해동물기피제)과 케이피엠테크(반도체표면처리약품)의 적자가 축소되었고, 조비(비료 제조), 태경화학(탄산가스 사업 영위), 원풍(산업용 PVC 제품 제조) 의 20.1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148%, 244%, 272% 증가
- 핸드셋, 자동차부품, 철강 등 제조업은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코로나 19를 계기로 수요가 늘어나고 정책 지원이 더해져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통신장비, IT 소재·부품·장비,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
 - 핸드셋, 자동차부품, 철강은 4월을 저점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 히 전년동월 대비 30% 이상 낮은 수준이며, 전염병 재확산 우려로 연말까지 경제활동이 완전 정상화되기는 어려워 수요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 - 반면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통신장비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국내 5G인프라 구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매출 성장세가 회복될 전망
 - 국내 통신3사는 2019년 기지국 투자에 이어 5G 상용화 2년차인 올해 건물 내에 스몰셀과 중계기를 설치하는 투자를 늘릴 계획
 - * 국내 5G 기지국 투자는 85% 가량 마무리 되었으며, 4G와 달리 5G는 통신 품질 유지를 위해 다수의 인빌딩 중계기가 필요
 - * 중국과 일본, 북미 모두 경기 진작 정책의 일환으로 5G 인프라 투자를 강조
 - 헬스케어는 코로나19 이후 가격대비 성능 좋은 한국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품
 의 글로벌 인지도가 제고되어 수출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
 - *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우리나라의 보건산업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4.5% 증가(의약품 +93.8%, 의료기기 +24.5%, 화장품 -1.1%)

• 반도체장비를 비롯한 IT부문 소재·부품·장비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민간과 공공부문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국산화율이 높아지며 관련 성과가 기업실적으 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

3. 시사점

- 코로나19 여파로 기계, 자동차부품, 철강 업종의 중소규모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 반도체장비, 의료기기, 게임 업종 등은 실적이 개선
-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우려되는 가운데에도 5G 통신인프라, K-의료를 주도하는 헬스케어, 국산화 성과가 나타나는 IT 소재·부품·장비는 국내·외시장 확대로 성장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
- 금융회사는 중소규모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를 경계하는 동시에 성장성이 높은 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

붙임1

상장 중소규모 기업 개요

■ 분석대상

- 비금융 상장기업 중 2018~2019년 매출액이 평균 1천억원 미만 기업을 중소 규모 기업으로 정의
 - * [대기업] '18~'19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상, [중견기업] 1천억원 이상, 5천억원 미만
 - 최근 3개년 연간 실적을 발표하고, 2018년 1분기 이후 분기실적 정보가 존 재하는 621개社의 연결재무제표 기준(연결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 개별실적)
 - 상장폐지 사유발생,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업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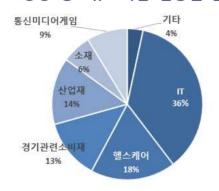
■ 업종 분류

- 와이즈에프앤 WICS 업종을 준용하여 9개 대분류, 23개 중분류, 64개 소분류 구분
- 대분류 업종별 중소규모기업 분포(기업 수 기준): IT 36%, 헬스케어 18%, 산업재 14%, 경기소비재 13%, 통신·미디·어게임 9%, 소재 6%, 기타 4%
- ※ 2020년 1분기부터 표본기업 구성 변경으로 인하여 이전 중소규모기업 실적동 향 분석과는 시계열적 연결성 없음
 - ① 중소규모 기업 기준 변경('18년 매출액 → '18~'19년 평균),
 - ② '통신·미디어·게임' 업종 신설(통신[기존 통신서비스], 미디어·엔터테인먼트 [기존 경기소비재], 게임[기존 IT] 등 포함)

■ 우량/부실 기업 현황

- 우량기업(2018~19년 연속 연간 영업흑자) : 20개 기업으로 분석대상의 3.2%
 - 20.1분기 매출액은 17%(YoY) 증가하였고, 2019년 1분기 이후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20%를 상회
- 부실기업(2018~19년 연속 연간 영업적자) : 189개사로 30.4% 차지
 - 20.1분기 매출액은 16%(YoY) 증가하여 성장성은 양호하나 매출액 대비 영업 적자 비율이 14%에 달함

상장 중소규모기업 업종별 분포



우량 vs.부실기업 분기영업이익 비교



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비교



업종별 영업이익률 비교



자료: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자료: 우리금융경영연구소